

6면에 이어서

# This man is proclaiming to the world

## 이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다

Today, this man is proclaiming to the world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the spirit controlling 'me' is sin, and the current human soul is the element of death. 오늘날 이 사람이 "나라는 주체영이 마귀다! 나라는 주체영이 죄다! 나라는 주체영이 사랑의 요소다!"라고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Because 'I' is the devil, and 'I' is a sin, this man did not move according to his control. This man did not move as his 'I' liked but mov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hroughout his life. I did things I didn't want to do, and if there was food I liked, I wouldn't eat it. If I wanted to eat something, I would not eat, and if I were sleepy, I would not sleep. It was the opposite life. 그리고 나라는 것이 마귀요, 나라는 것이 죄가 되는 고로 나라는 것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으며 그리고 내가 먹기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뭘 먹고 싶으면 먹지 않고 졸리면 잠을 안 잤습니다. 반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Living the opposite life was terribly painful and very difficult. However, since it is the word of God, I have put great effort into putting it into practice. While evangelizing, sometimes aggressive people beat me hard, and this man did not shed tears because he was unfair but gave thanks. This person is a person who has been evangelizing all his life. Wherever this man went in Korea, I established a church and a school. The fact that he set up churches wherever I went mean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ngle day without his evangelism. 반대생활을 하기로 한 것은 무던히 고생이 되었

으며 무던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고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못매를 맞으면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다니면서 전도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Because everything that 'I' think of is a sin, That's why if I like something, it's a 'favorite adultery', if I plan for the future, it's a 'budgeting obscene crime', and if I pray it's the same sin as 'the devil prayed'. 그리고 바로 오늘날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가 되는 고로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음란죄', 내가 예산을 하면 '예산하는 음란죄',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귀가 기도를 했다가 되는 고로 그리고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 God came and prayed to God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Therefore, when this man prayed, God came and prayed to God. I chose this prayer method and prayed. Since God has to come and pray, obeying God's word is prayer: This man found that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s prayer. 그리고로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방법을 택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어 그리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Therefore, the Bible says that if you have lust in your heart, you have already sinned fornication. This man was trying so hard not to sin in my heart. 그리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란죄를 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로 마음으로 죄를 안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Therefore today, this man is proclaiming to the world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the spirit controlling 'me' is sin, and the current human soul is the element of death. 그리고로 오늘날 "나라는 주체영이 마귀다! 나라는 주체영이 죄다! 나라는 주체영이 사랑의 요소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today, people do not know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the element of death, original sin, hereditary sin, and self-crime. That fact is the same as saying that they do not know anything about the Bible. 그리고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11년간 장교생활 당시 조희성님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요소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요 유전죄요 자범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There is a secret in this Bible that everyone does not die who knows the Bible, studies the Bible, or does not believe in the Bible, non-believer, Buddhist, etc. Sinc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element of death, the person does not die if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removed. 그리고로 오늘날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불교 신자나 누구든지 다 죽지 않는 비결이 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요소인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면 바로 사람은 죽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The Spirit of God is a sacrificial spirit 하나님의 영은 희생적인 영

For that reason, I have to move sacrificially in my life, not moving as I want it to, but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Spirit of God is a sacrificial spirit, this man did the toilet cleaning that others did not want to do. Also, this man had not eaten a single meal of an officer's meal during his 11 years of service as a military officer in Korea. This man always gave his officer's meal, rice, and meat soup, to the weak pawns. This man ate his meal, which had mostly barley and salt soup. 그리고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생활, 희생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희생적인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희생적인 영인고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번소 청소를 이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한국에서 장교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은 장교 밥을 한끼도 안 먹었던 것입니다. 항상 허약한 졸병들에게 이 장교 쌀밥, 고깃밥을 주고 이제 그대로 그 사병의 밥, 보리짚밥을 소금국에 먹었던 것입니다.

This person's face was getting worse and worse, so the liaison officers were crying and telling this man to eat the officer's meal only today. Still, the reason this man never ate the officer's meal and ate the private's meal was not to gain popularity among them. For this person, to live obeying the

words of the Bibl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consider your brother's pain like mine", is a sign of sacrificial efforts to obey God's love and God's merciful word. 이 사람의 얼굴이 점점 나빠지니 연락병들이 울며하며 장교 밥을 오늘날 잡숫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한번도 장교 밥을 먹지 아니하고 사병 밥을 먹었던 것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만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또한 '너희는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라' 하는 이런 말씀대로 이 사람은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No matter how good the word is, if you do not put it into practice, the word is a dead word, and therefore faith without exercise is the dead faith. There is a saying that only faith with performing is the faith with life. Therefore, only when you practice will the life of the word move lively, and eternal life is with you. If you don't put it into practice, the word becomes dead.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요, 그리고로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로 행해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영생이 함께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그 말씀은 이제 바로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면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48회

# 금운 정도령이 마지막 주인공이며 뒤에 나오는 사람은 없느니라

## 隱秘歌(五) 은비가

三家三道未運— 삼가삼도말운일  
仙之造化蓮花世 선지조화련화세  
自古由來預言中 자고유래예언중  
革舊從新萬道覺 혁구중신방도각  
末世聖君容天朴 말세성군용천박  
弓乙之外誰知人 궁을지외수자인  
瀛洲蓬萊三神山 영주봉래삼신산  
十勝中地朴活處 십승중지박활처  
養生工夫不離 양생공부인불리  
脫劫重生更無變 탈겁중생경무변  
若求不死願永生 약구불사원영생  
須問靈神木將軍 수문령신목장군  
天地牛馬世不知 천지우마세부지

유가(儒家) 불가(佛家) 선가(仙家)의 삼도(三道)가 말운(末運)에 가서는 정도령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고 이 세상은 신선(神仙=정도령)의 해인조화(海印造化)로 연화세계(蓮花世界=지상천국)가 되느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예언 중에 도를 찾는 군자(방도군자訪道君子)가 깨달아야 할 바는 "옛 습관을 고치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좇아야 하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도 닦는 자는 지식을 쌓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자신 속의 옛사람(마귀)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속에는 진리가 없다(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교만 방자한 마귀의 도에 빠져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덕은 천도지덕(天道地德)의 줄인 말이다. 천도(天道=하늘의 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이를 땅위에 실현하는 것이 지덕(地德)이나 곧 영생의 진리를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덕을 퍼는 일은 그 바깥이 나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에는 "겸(謙=겸손 겸허 겸양)은 덕지병(德之病)이라" 했던 것이다. 도끼도 도끼자루가 없으면 도끼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이 나를 낮추는 겸손·겸허·겸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덕(德=전도)을 제대로 퍼지 못하는 것이다. 허물며 나를 죽여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임에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 어느 정도 도를 닦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 도를 닦은 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죽였는가? 만 보면 도를 닦은 정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설치고 나대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마귀)을 죽이기는커녕 나를 키우고 자존심을 한껏 부풀리는 행위에 다

름 아니니 대마귀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좌정하신 말세성군(末世聖君) 목인(木人)을 궁을 즉 십승지인(十勝之人) 본인 이외에 어느 누가 알겠는가? 신선이 산다는 영주(瀛洲) 봉래(蓬萊) 방장(方丈)이라는 삼신산(三神山)이 십승(十勝)인데 목인(木人=감람나무의 사람)이 그 중심에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느니라. 목인(木人)은 세 분으로 나오게 되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완성의 정도령으로 출현한다. 양생공부(養生工夫) 즉 영생의 도를 닦고자하는 사람은 심승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 탈겁중생(脫劫重生) 즉 성령(聖靈)으로 거듭나면 다시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을 벗어나라.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불사영생不死永生)를 원한다면 모름지기 신령스러운 하나님인 목장군(木將軍=목인木人=감람나무의 사람=81궁 정도령)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은 천마지우(天馬地牛) 즉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그만큼 정도령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鄭氏天姓誰可知 정씨천성누가지  
容天朴人容天伯 용천박인용천박  
何姓不知鄭道令 하성부지정도령  
無後裔之血孫出 무후예지혈손출  
西警東逢解冤世 서수동봉해원세  
長安大道正道令 장안대도정도령  
鄭本天上雲中王 정본천상운중앙  
再來春日鄭氏王 재래춘일정씨왕  
馬枋兒只誰可知 마방아지누가지  
馬姓何姓世人察 마성하성세인찰  
眞人出世分明知 진인출세분명지  
慎之慎之君君子 신지신지침군자  
銘心不忘弓乙歌 명심불망궁을가  
運來前路松山開 운래전로송송개  
蘇城白鯉氣氣滿 소성백어살기만  
四面百里人影絕 사면백리인영절

정씨(鄭氏)가 하늘의 성(姓)씨라는 것을 누가 가히 알리오 말세성군인 용천박(容天朴)은 사람의 얼굴을 한 하나님으로 중천운(中天運)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요(목

운 5도72궁), 어떤 성씨인지를 모르는 정도령이니라. 세 번째 사람(금운 6도81궁)은 뒤에 더 나올 사람이 없고 마지막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피가 이어져 내려온 단군의 후손으로서 세상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신 성인(聖人)으로서 서방에서 원수가 되어 맞힌 원한이 동방에 와서 풀어지느니라. 영원토록 안락(安樂)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장안대도(長安大道)의 주인공 정도령은 본래 천상의 운중앙(雲中王) 즉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의 주인공 하나님이고, 삼일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정씨왕(鄭氏王)이니라. 마방아지(馬枋兒只=마굿간의 아기=구세주)를 누가 가히 알리오 마성(馬

姓=정도령의 성씨)이 어떤 성씨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진인(眞人)이 세상에 나오셨음을 분명히 알리라. 세상의 모든 군자들은 말과 행동을 삼가고 또 삼가서 궁을가(弓乙歌)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말지어다. 궁을가에서 말하는 좋은 운이 와서 앞길이 술술 열리느니라. 소성(蘇城=소련)과 백하(白鰲=미국)가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니 살기(殺氣)가 가득하리라.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동서남북 사면 백리(百里)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리라.\*

백명하 / 고서연연구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만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